

대학 벤처 동아리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모임인 대학의 동아리는 참여자들이 동아리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능동적인 객체들의 유기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참여자들의 동기부여 정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 목표의 성취도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1. 서 론

현

재 우리 나라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고도화되고 차원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발전을 위해서 벤처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주요한 방법론으로 제기되어 여러 각도에서



이러한 방법론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사회에 불고 있는 벤처 열풍은 학문과 지식의 요람으로써 일반적으로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 사회에까지 거침없이 밀려들어와 대학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 학생, 연구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의식 구조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 구조에까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치 활동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와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는 동아리라고 하는 자생적인 조직

에도 역시 벤처를 위한 모임들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본 기고는 이러한 대학 벤처 동아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즉, 대학 벤처 동아리의 역할과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결성된 주요 동아리들을 소개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또는 활동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창의와 혁신이라고 하는 보다 생산적인 벤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 한다.

2. 대학 벤처 동아리의 역할

대학 벤처 동아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세가지 관점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기업 문화적인 관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들 수 있다. 6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에 의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하여 성장한 대기업들은 정경 유착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최근 한보 사태는 이러한 기업문화의 종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 2세들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 사태는 지금까지의 기업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경제 구조상의 문제이다. 세계는 현재 정보의 거대한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대량 정보의 유통은 정보화 사회의 진면목을 경험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과거 중화학, 노동 집약적인 산업화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에 기반한 경제로 구조 전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세번째는 교육 구조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창의와 혁신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지식 집약적이고 두뇌 집약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할 때 현재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또한 개인의 창의를 발휘할 수 없는 제도 교육하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의 집합체이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학습하고 연구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론이 대학의 벤처 동아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첫번째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바람직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우수한 기업인을 대학이 선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두번째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충분하게 연구한 인재들이 대학의 졸업과 동시에 기업을 창업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벤처 기업의 배태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가 벤처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주요 배태 조직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기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번째 교육 구조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와 강의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학습에서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경험과 취급하게 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정보들을 통한 다원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의 사회에 실용적으로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파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는 대

단히 증대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모임인 대학의 동아리는 참여자들이 동아리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능동적인 객체들의 유기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 정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 목표의 성취도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벤처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창의와 혁신에 의한 모험정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동아리들 보다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벤처 동아리는 기존의 대학 동아리와는 상당히 다른 토양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학부 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형태를 탈피하여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학원이 중심이 되는 동아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의 척도는 전문 기술의 확보 정도이기 때문에 벤처 기업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사업을 위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리의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회원들의 교육이나 다른 활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투자하거나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여 다소 기업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익 활동과 수익의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 조직과 바람직한 방향의 자본주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 방향성

그림 1은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주변 환경들간의 관계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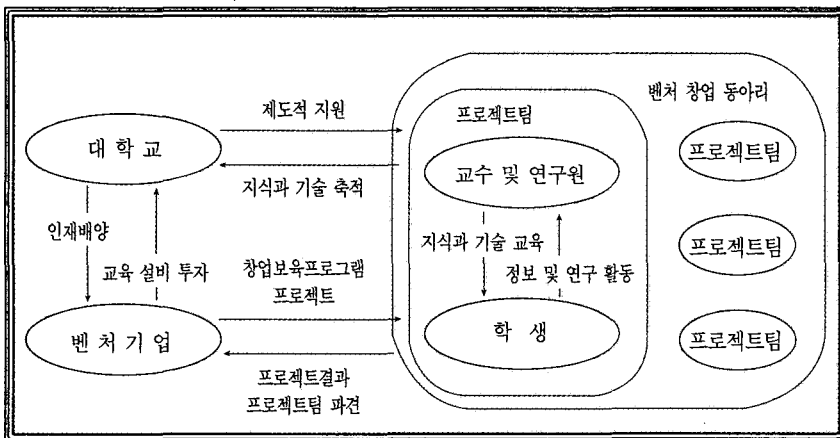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변 환경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설립되었거나 또는 기존의 협력 가능한 기업들 그리고 대학 벤처 동아리의 세 주체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은 그 구성에 있어서 대학의 각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상호 활동으로 나타난다. 즉, 교수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학생들은 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보 활동과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 관계를 통하여 어떠한 주제에 대한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주체는 사업

아이템으로 정제되고 이러한 아이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 아이템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지원을 통하여 설립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대학과 대학 벤처 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그림 1>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 환경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유치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인력과 사업 인력을 확보하고 대학 벤처 동아리와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보다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여 이들 인재들이 세우는 우수한 기업들과의 수평적인 연대를 통하여 대학의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의 성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서 각 대학의 특성화된 성장을 통하여 각 대학별 차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얼마나 많은 회사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4. 주요 대학의 벤처 동아리 소개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설립된 벤처 동아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또 이러한 벤처 동아리들이 하나의 대학에 다수의 단체가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현재 각 대학의 벤처 열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지수로써 지난 7월 11일에 중소기업청의 대학 벤처 동아리 설립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단체는 무려 92개에 달하였고 그중에 26개 대학이 선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동아리의 설립 취지에 있어서 본질적인 벤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대학교의 동아리들을 소개한다.

4.1 KAIST 비즈니스 클럽

대학 벤처 동아리의 효시는 대전 KAIST의 KBC(KAIST Business Club)라고 할 수 있다. 이 동아리는 1996년 5월

4일 대학생 창업 지원 연구 동아리로 출발하여 현재 170명의 회원과 11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동아리의 3대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학술 사업은 신문 발행, 세미나, 워크숍, 동계 창업 교실, 사업 계획서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창업 마인드를 형성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둘째, 사업의 아이템을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독창적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금융, 법률, 인력, 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의 사업으로 IP(Information Provider) 사업, Headhunter 사업 등을 수행하여 KBC 자체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창업 지원 업무를 보조한다.

4.2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 “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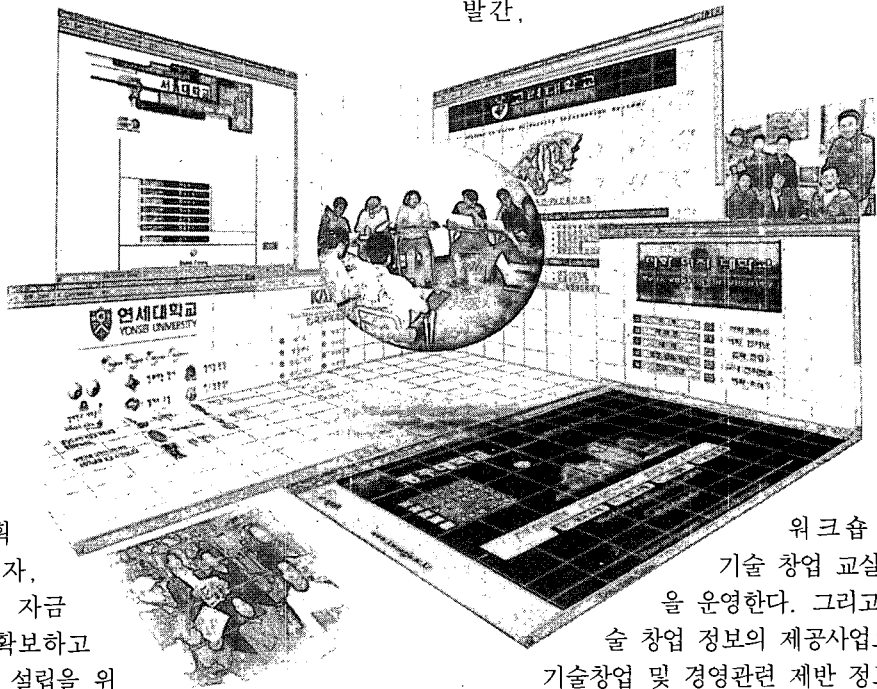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 벤처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업화함으로써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회장과 사무국, 교육국, 사업국, 홍보국의 4개 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회장은 동아리 전반의 운영에 대한 기획 및 섭의를 담당하고 사무국은 행정적인 처리를 담당하여 각종 강연회를 개최한다. 교육국은 벤처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적인 이론 지식을 교육한다. 사업국은 동아리의 회원 관리 및 구성 팀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홍보국은 학교 내·외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창업 마인드 확산을 위한 각종 인쇄물의 제작, 이벤트 행사 홍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이 동아리는 벤처 동아리 나아가서 벤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 방안으로 팀별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창

출된 아이디어를 단위로 팀이 구성되어 사업 계획서의 작성, 벤처 자금의 확보, 개발 및 구현 그리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프로세스 전반을 주도적으로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에는 기획, 시장조사, 가격 정책의 수립, 손익 분기점 분석, 성공 가능성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정 학생들이 14명이고 학부 학생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원들을 전공별로 구분하면 공과대학 59명, 상경대학 15명, 인문대학, 자연대학 그리고 약학대학의 기타 전공자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대 벤처기업 연구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및 학술 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개최, 창업 정보지의 발간,



기획 담당자, 벤처 자금을 확보하고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섭외 및 재무 담당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담당자로 구성된다.

4.3 부산대 벤처기업 연구회

부산대학교의 벤처 동아리인 부산대 벤처기업 연구회는 1997년 5월 13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 동아리로 발족하였다. 현재 회원의 현황은 총 84명에 석·박사 과

워크숍 및 기술 창업 교실 등을 운영한다. 그리고 기술 창업 정보의 제공사업으로 기술창업 및 경영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컨설팅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특히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대행한다. 또한 아이템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알맞은 기반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4.4 전남대학교 벤처 창업 연구회 "장인 정신"

전남대학교의 벤처 창업 연구회인 장인 정신은 1997년 5월 23일 창립 총회를 통

하여 발족하였으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혁을 위한 벤처 창업 마인드의 확산과 수준있는 인력 풀의 제공 및 창조적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이라는 여타의 다른 벤처 동아리와 유사한 취지 이외에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 대학(Virtual University)과 연계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웹 환경에 대한 마인드의 확산이라는 다소 독특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전남대학교 벤처 창업 연구회 “장인 정신”은 연구 테마에 대한 팀별 분과 학습을 통하여 각 팀별 연구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테마별 전문가 시스템과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직제를 도입하여 대학 1학년 때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따라서 Junior, Senior, Supervisor, 그리고 Partner로 이어지는 전문가 시스템은 각 단계마다 테마별 주제 연구 및 발표를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4.5 연세 벤처 창업 연구회

연세대학교의 벤처 동아리인 연세 벤처 창업 연구회는 1997년 6월 5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37명의 회원으로 발족하였으며 현재 4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회원은 법과대학, 문과대학, 자연대학이 각 1명씩 3명이며 상경대학이 10명 그리고 공과대학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동아리의 특징은 종합대학교의 특징을 살려서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활동만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6개의 분과로 구분하여 분과의 자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과들은 정보통신 분과, 기계 전자 분과, 화공 생물분과, 건축 토목 분과, 경영 법률 분과 그리고 문화방송 분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분과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운영국으로 교육국, 사업국 그리고 홍보국의 3개 국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학원생 중심의 운영과 프로 정신에 입각한 활동을 위해서 자체의 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결과 보고서와 논문지로 제작하여 내부적인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자체적인 교육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동아리는 이러한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결정을 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서 수행하는 분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결 론

현재 세계는 정보화 사회의 대 격변기에 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와 혁신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정신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변혁기의 혼돈 상태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응전략으로써 벤처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식과 기술의 집약체인 대학의 역할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대학에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창의와 혁신에 의한 가치의 창조를 위한 벤처 동아리를 확산시키는 것은 벤처 문화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각 대학에 자생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벤처 동아리의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벤처 붐이 한때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매우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생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